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8일 목요일 음 3월 29일 (6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 주	70%
80%	성 산	80%
70%	고 산	70%
80%	서귀포	8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7/21℃
모레	구름 많음	16/23℃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8℃, 낮 최고기온은 19~22℃로 전망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해뜸 05:32 해짐 19:29		달뜸 04:25 달짐 18:09
물때	만조 09:33 22:22		간조 04:04 16:06

식중독지수: 주의 /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美 연준, '6월 금리 동결' 둘러싸고 이견

"물가 안정" VS "상승 충격"

美 연준(CG).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이 6월 금리 동결 여부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의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4명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인사들은 그동안 긴축 기조에 대해 강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인상을 멈출 만큼 금리가 높은지에 대해 분열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연준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음 달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장도 금리 인상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 올라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두 배 이상인 점은 긴축 종료 가능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바킨 총재는 "만약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이 윤 형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오 수 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제주 섬에서 여성

제주에서 여성은 특별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다던 설문대할망은 걸어 다니거나, 잠시 쉬었던 흔적만으로도 지금의 제주섬을 만든 장본인이고 당오백 절오백의 중심에는 금백주할망이 당신의 원조로 자라잡고 있다. 또한 농업경제의 바탕에는 농사의 신 자청비가 제주의 풍요를 견인했고 바다의 생산량으로 경제력을 끌어올린 이들도 여성인 해녀들이었다. 그리고 한두 줄의 기록과 정려문으로 남겨진 효열·효부들,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김만덕,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최정숙·강평국·고수선 등과 같은 애국지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이전까지 제주에는 바람과 돌, 여자가 많다는 삼다의 섬으로 마케팅됐다. 실제로 조선시대 제주를 기록하고 있는 '지리지'나 '읍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주의 성별 인구수에서도 대략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30% 정도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제주는 창조신화부터 사회, 경제사, 근현대 독립운동사까지 여성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제주를 만들고 섬의 수호자가 돼 고유의 문화를 형상화시킨 주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꽃이 많은데도 600년이 넘는 조선 이후 역사 속에 훌륭한 일을 하고 멋지게 산 여성을 말해보라면 손에 꼽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제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유교사상의 뿌리가 정착되면서 남녀인식, 신분의 서열 등 사회변화가 매우 컸다. 특히 남녀차별에 의한 여성의 활동성을 축소해 기록하거나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시대성을 반영한 대표 여성을 세우는 데는 한계일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전투는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랐다는 데서 연유했다고 하면서 권율 장군 이름만 남겨졌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기록의 대상에서 여성은 빠져 있다. 지금이야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과 조화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성세대에 깊게 남아있는 유교적 시각이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느낄 것이다. 제주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김만덕을 제외하고는 딱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부족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20여 년 전부터 제주를 이해하기 위한 정체성, 생활문화, 경제를 이끌어 낸 여성에 대한 기록들이 이뤄졌다.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유산 등재를 비롯해 김만덕 뮤지컬, 일제 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사업, 서훈작업들이 여러 연구자들과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지역사회에서는 제주의 여성 인물을 대라고 하면 머뭇거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축적된 성과를 다양한 문화컨텐츠사업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열린마당

엄마, 친절하게 말해줘!

고 은 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나는 올해 7살, 3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가끔 첫째 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단호한 말투로 타이르곤 하는데 그때마다 딸아이가 하는 말이 있다.

"엄마, 나한테 친절하게 좀 말해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금방 마음이 사그라든다. 아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어서 별생각없이 넘겨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는 친절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자기가 혼나지 않게 분위기만 넘기려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은 아닐까?

무슨 의도를 갖고 한 행동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저 아무 말 한마디로 금방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새어난다. 아이의 저런 모든 게 친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친절해 보이려고, 친절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주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친절은 행복한 전염병', '친절과 행복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글귀를 본 기억이 있다. 우리 가족의 친절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턴 나의 친절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민원인,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키고 싶다.

"엄마, 나한테 친절하게 좀 말해줘!"라고 말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아이들의 친절을 보고 행복을 키우는 시간은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친절한 미소가 떠올라 행복이 전염되고 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김 재 완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달려있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며 앞에 가던 차들이 도로 양측으로 차를 피해 소방차의 출동로를 만들어 주는 영상이 이슈가 되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로 위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제 갈 길 가기 바쁜 차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로 위의 양보하는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유라조생 1~3년생
하례조생 1~4년생
궁 천 1~4년생
레 드 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한라봉 2,3년생
·유라실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탱자묘목 2년생
·하귤 4,5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귤(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하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아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귤,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